

목 차

IV. 보험 · 비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
2. 보험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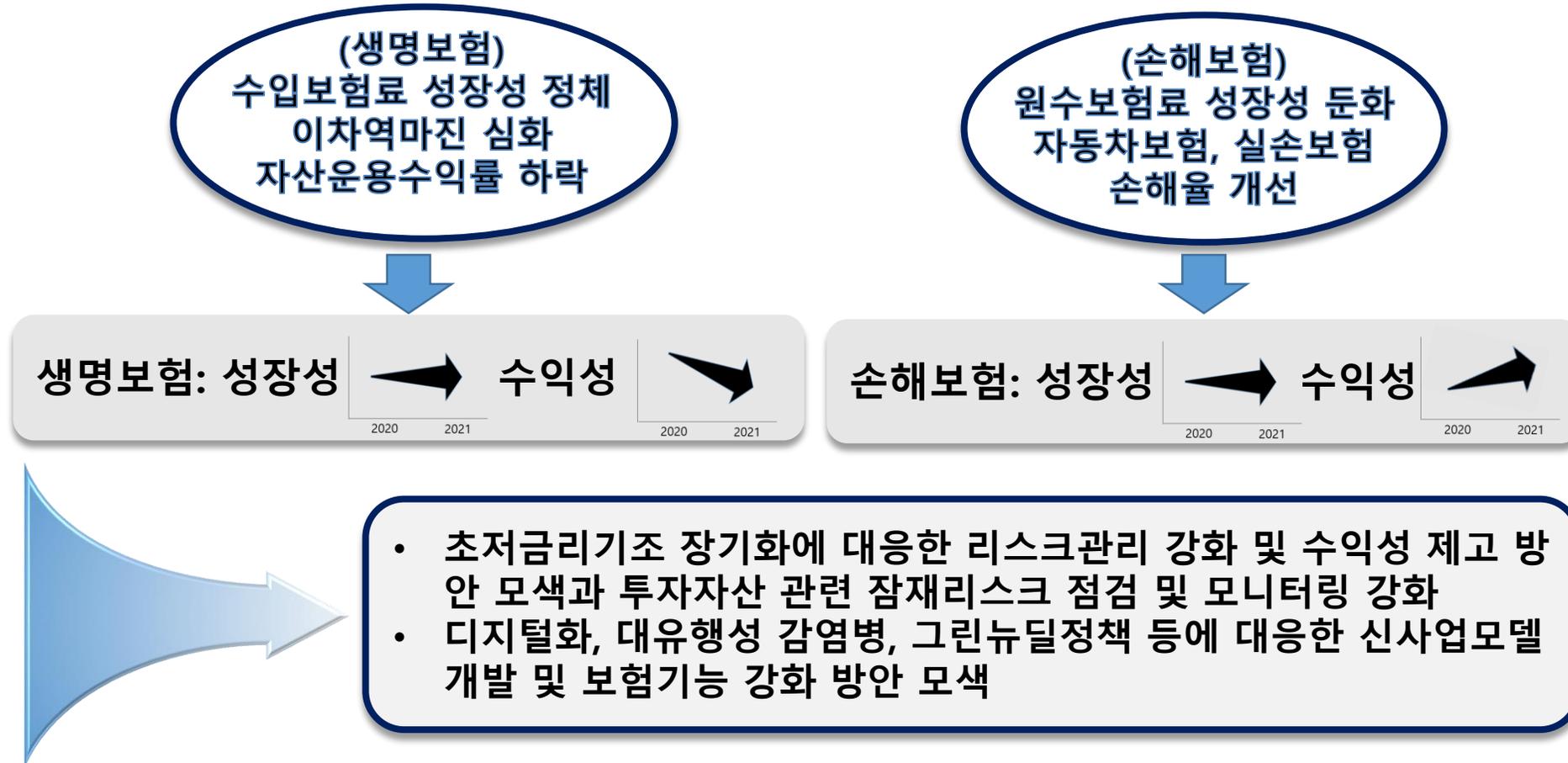
3. 서민금융기관

4. 정책서민금융

5. 여신전문금융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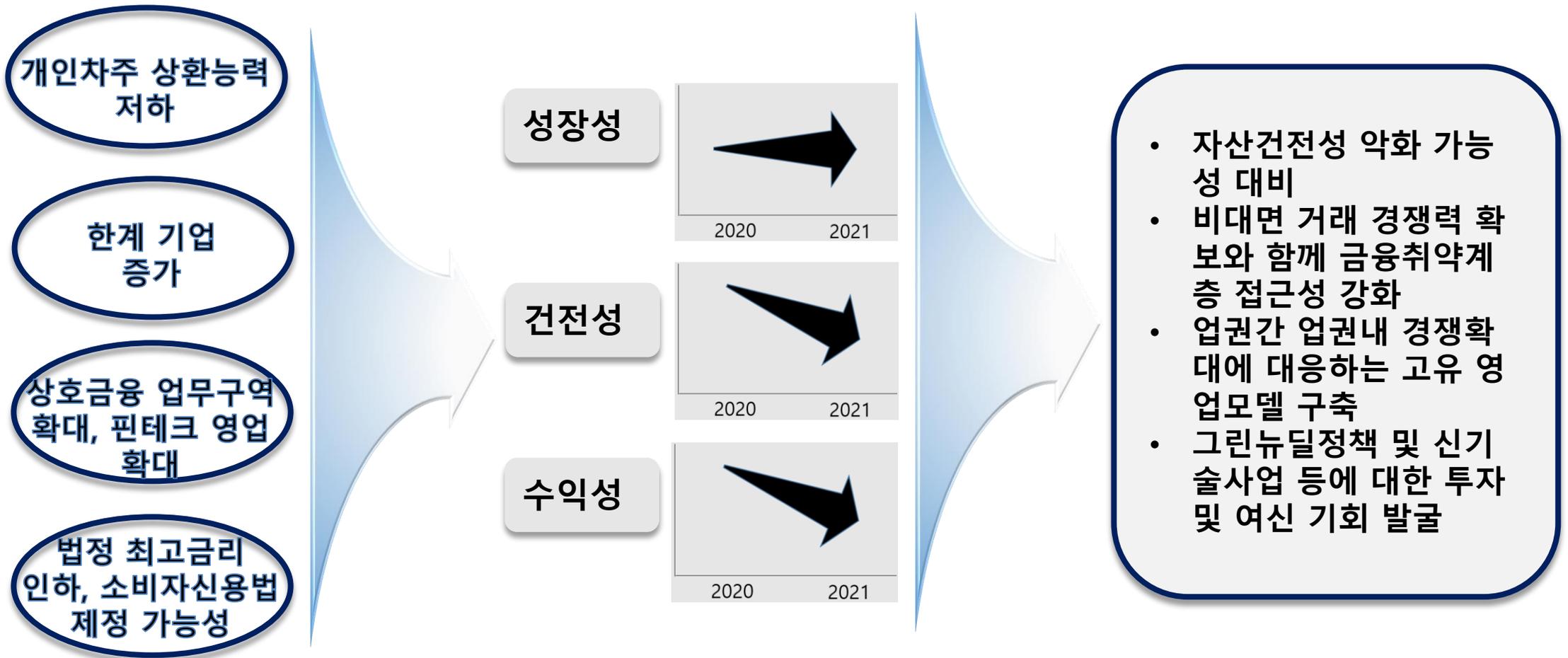
금융산업 주요이슈

- ◆ 보험업권: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변화, 초저금리 장기화 등 거시금융 환경이 성장과 수익성을 제한하는 가운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화 촉진, 리스크관리, 소비자신뢰 제고 등의 노력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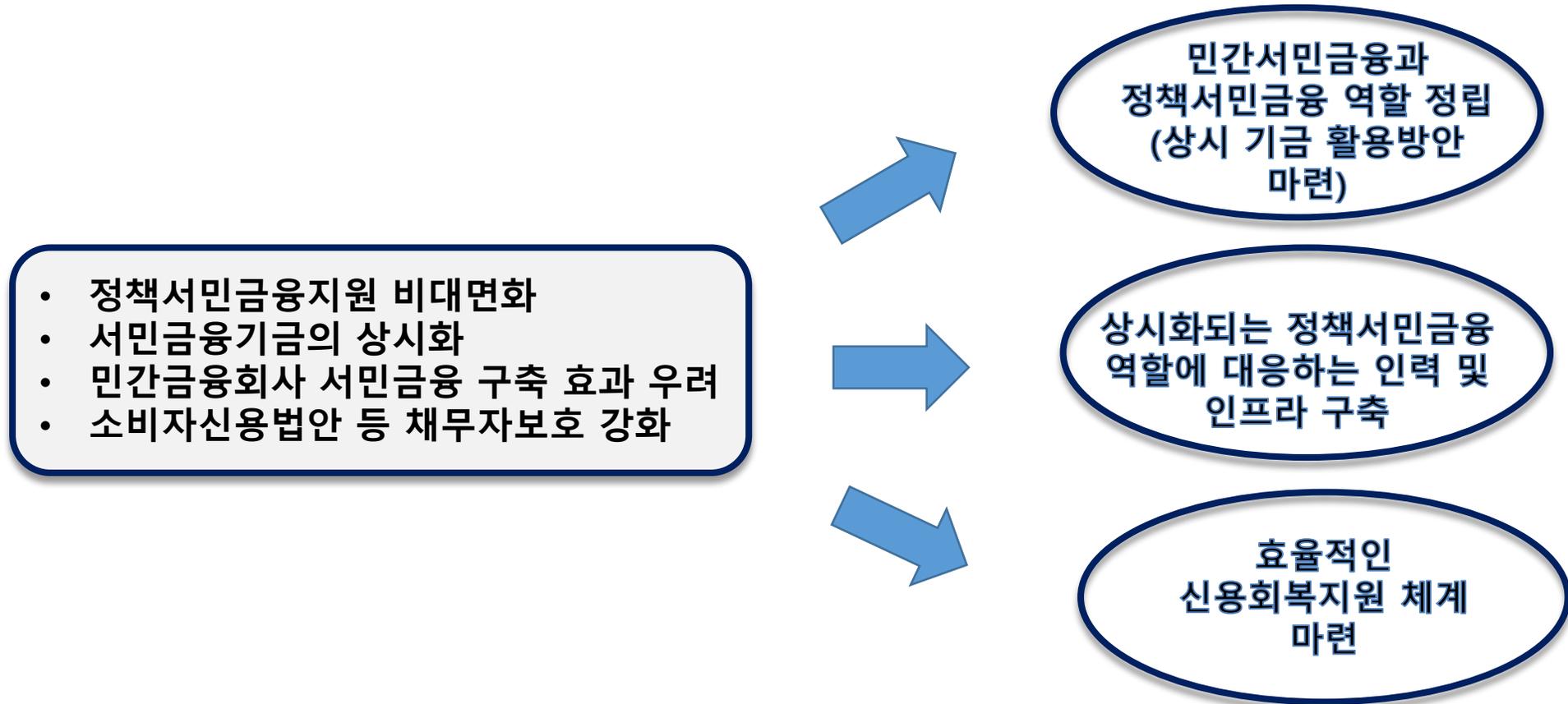
금융산업 주요이슈

◆ 중소기업금융(여전업, 저축은행, 상호금융):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화된 개인 및 기업의 상환능력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다양한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



금융산업 주요이슈

◆ 정책서민금융: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수요 확대, 신용회복이 필요한 연체 및 채무 불이행자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정책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



목 차

IV. 보험 · 비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
2. 보험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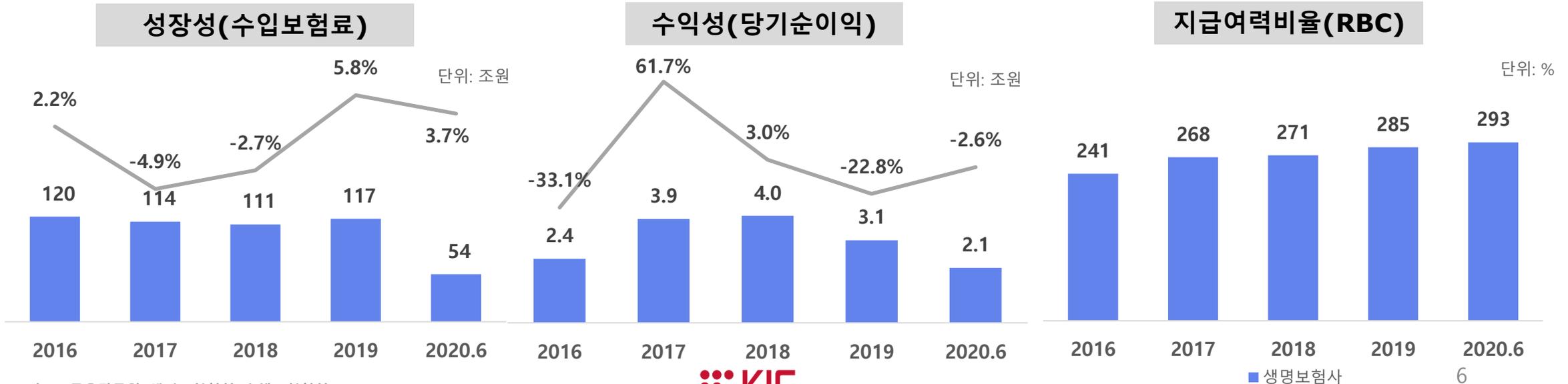
3. 서민금융기관

4. 정책서민금융

5. 여신전문금융업

가. 2020년 경영성과 동향(생명보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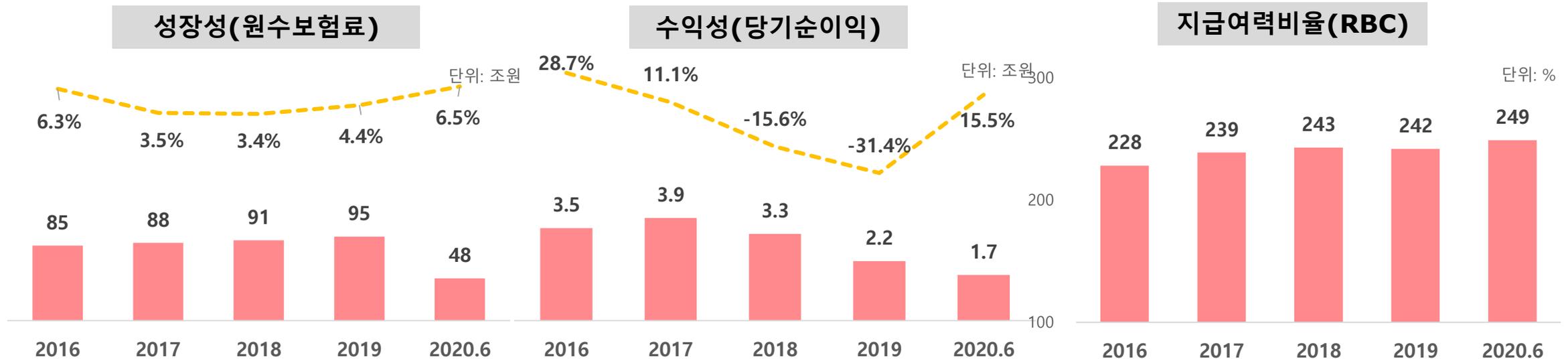
- ◆ (성장성) 2020년 상반기 중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54조 1,619억원으로, 저축성보험(+6.0%)과 퇴직연금(+12.2%)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동기(52조 2,460억원) 대비 3.7% 증가
- ◆ (수익성) 2020년 상반기 중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727억원으로, 보험영업손실이 8,325억원(7.0%) 확대되고 투자영업이익이 8,771억원(7.1%) 증가하며 전년동기(2조 1,276억원) 대비 2.6% 감소
- ◆ (재무건전성) 2020년 6월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RBC비율(=가용자본/요구자본)은 292.6%로 2020년 3월말(281.2%) 대비 11.4%p 상승



자료 : 금융감독원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

가. 2020년 경영성과 동향(손해보험)

- ◆ (성장성) 2020년 상반기 중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(+5.5%) 및 자동차보험(+11.5%)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동기(44조 8,912억원) 대비 6.5% 늘어난 47조 8,135억원을 기록
- ◆ (수익성) 2020년 상반기 중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손실이 감소(1,588억원)하고 투자이익이 증가(4.8%)한 것에 힘입어 전년동기(1조 4,850억원) 대비 15.5% 증가한 1조 7,156억원을 기록
- ◆ (재무건전성) 2020년 6월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248.6%를 기록하며 2020년 3월말(241.6%) 대비 7.0%p 상승



나. 2021년 보험산업 경영환경

- ◆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및 초저금리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보험영업 환경과 투자영업환경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, 디지털화 촉진, 자본건전성 강화, 소비자신뢰 제고 등이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



다. 2021년 경영 기회 및 위험 요인

기회 요인

- ◆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수익원 및 보험수요 창출 기회 확대
- ◆ IT기술, 제도 개선(소액·단기보험업 등 관련) 등에 힘입은 시장진입, 특화·전문화 기회 확대
- ◆ 고령화 시대 연금상품, 건강관련 상품, 자산관리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증대
- ◆ 대유행성 감염병, 그린뉴딜정책(특히,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) 등에 따른 신성장영역 및 대체투자 기회 창출
- ◆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여행·이동 제한, 언택트 확산, 건강관리 경각심 제고 및 실손의료보험 개선 등이 손해율(보험금지급률) 개선 요인으로 작용
- ◆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증가 및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
- ◆ 신국제회계기준(IFRS17) 및 신지급여력제도(K-ICS) 도입을 통한 보험사의 증장기적 재무건전성 체질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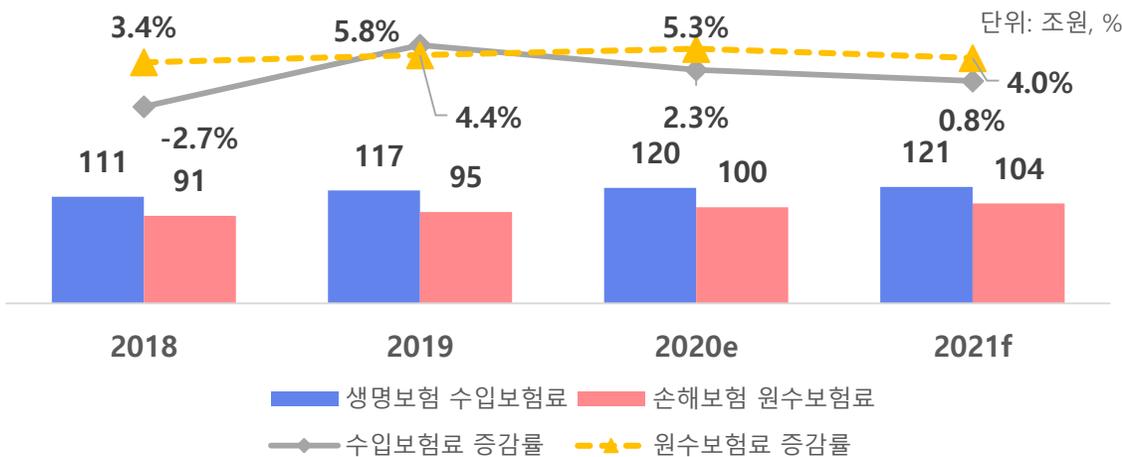
위험 요인

- ◆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신규 보험가입 감소 및 기존 계약의 효력상실·해약 증가 가능성
- ◆ 초저금리기조 심화·장기화에 따른 이차역마진 확대 및 자본건전성 부담 가중(특히 IFRS17 도입 관련) 우려
- ◆ 경기회복 지연 및 소득 감소 등으로 대출채권의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 상승 가능성
- ◆ 코로나19 발(發) 글로벌 봉쇄조치 확대·장기화로 부동산, 항공기 등과 같은 해외투자자산의 손실·부실화 우려
- ◆ 코로나19 재확산·장기화로 초저금리기조 심화, 증시급락이 재현될 경우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전입액 증가 및 수익성(당기순이익)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
- ◆ 방대한 정보력, 디지털 유통망, 자본력 등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(특히 판매채널) 진입 및 기존 가치사슬 변형 가능성
- ◆ 소비자 권익 강화 및 신뢰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 증대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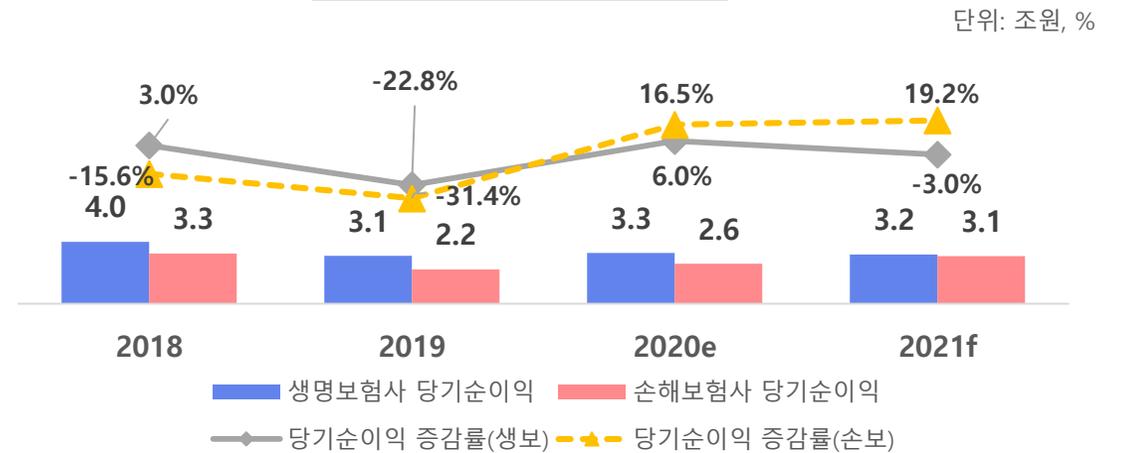
라. 2021년 경영성과 전망

생보	성장성		•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입보험료 성장성 정체
	수익성		• 초저금리기조 장기화 및 대내외 금융환경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이차역마진 심화와 자산운용수익률 하락
손보	성장성		•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소득·수입 감소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원수보험료 성장성 다소 둔화
	수익성		• 자동차보험·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개선 • 초저금리기조 등에 따른 투자영업환경 악화

성장성(수입보험료, 원수보험료)



수익성(당기순이익)



자료 : 금융감독원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

마. 2021년 정책 및 경영과제

- ❖ 보험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·감독 체계 보완 및 개선
- ❖ 부동산 등 해외투자자산 관련 잠재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
- ❖ IFRS17 및 K-ICS 도입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개선 지속
- ❖ 보험상품 및 영업행위 등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
- ❖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신성장동력 모색 및 미래 경쟁력 확보
- ❖ 포스트 코로나 시대(특히, 언택트 확산)에 대응한 신사업모델 모색 및 보험기능(역할) 강화
- ❖ 초저금리기조 심화·장기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
- ❖ 손해율 및 사업비율 개선을 위한 보험사의 자구적 노력 강화
- ❖ 100세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및 장수리스크 관리 강화
- ❖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 방안 모색

목 차

IV. 보험 · 비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2. 보험산업
- 3. 서민금융기관**
4. 정책서민금융
5. 여신전문금융업

가. 2020년 경영 현황 - 상호금융

◆ 총자산은 예년의 성장 추세(약 7%)를 지속

* '20.6월말 현재 전년 동기(528조원) 대비 7.0% 증가

◆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

* '20.6월말 현재 전년 동기(1.6조원) 대비 0.1조원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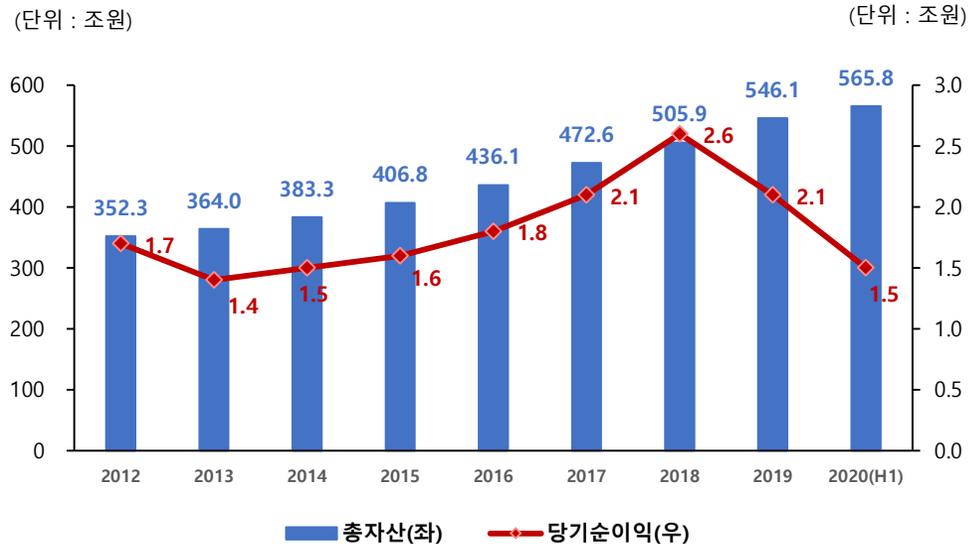
◆ 연체율은 '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

* '20.6월말 현재 2.02%로 전년 말 대비 0.3%p 증가

◆ 순자본비율은 '18년 이후 8% 수준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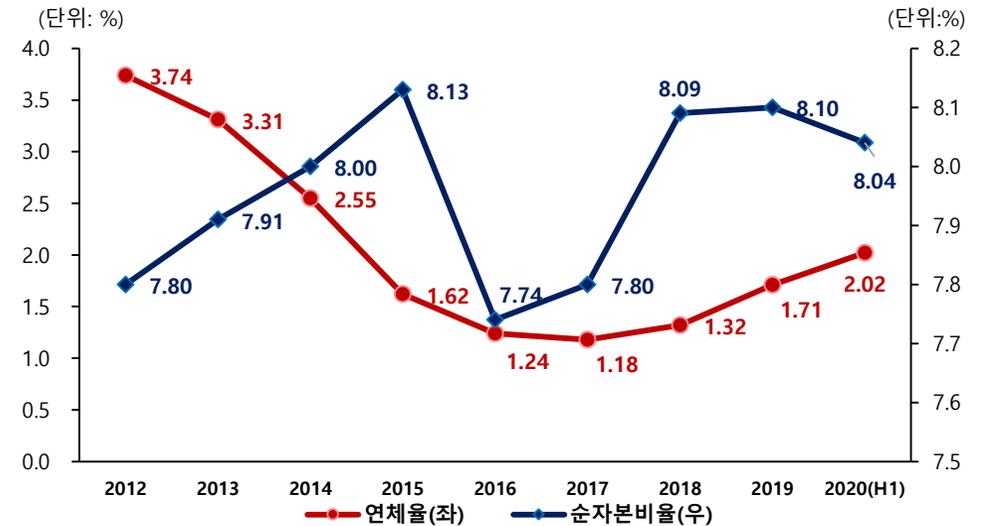
* '20.6월말 현재 8.04%로 전년 말 대비 0.06%p 감소

상호금융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



주 : 새마을금고 제외
자료 : 금융감독원

상호금융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추이



주 : 새마을금고 제외
자료 : 금융감독원

가. 2020년 경영 현황 - 저축은행

◆ 총자산의 성장세는 '16년 이후 소폭 둔화

* ('16)19%→('17)14%→('18)16%→('19)11%→('20.2Q)7%

◆ 당기순이익은 예년과 유사하게 1조원대를 유지

* '20.6월말 현재 0.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1조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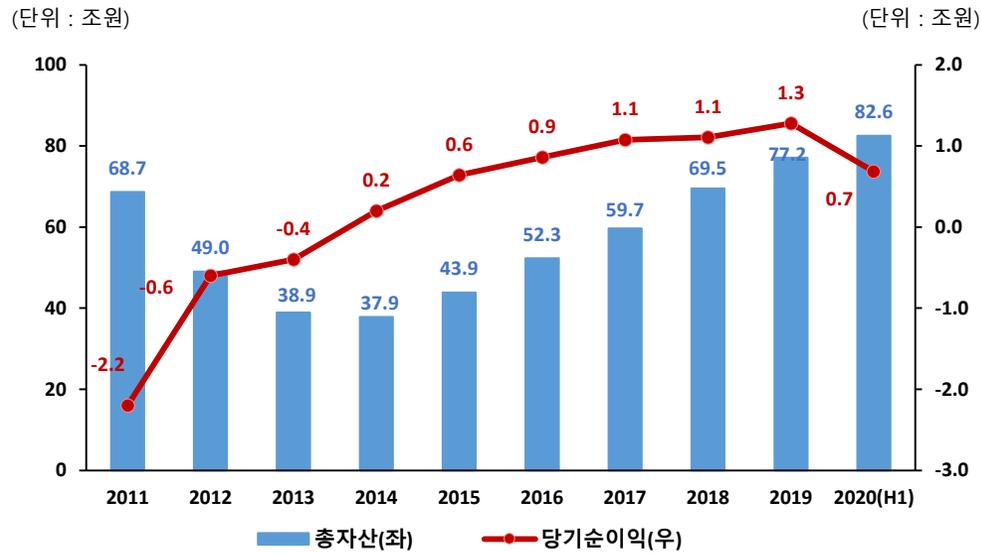
◆ 연체율은 3% 후반~4% 초반 수준을 유지

* '20.6월말 현재 3.7%로 전년 말(3.7%)과 동일

◆ 자기자본비율은 14.8%대에서 안정적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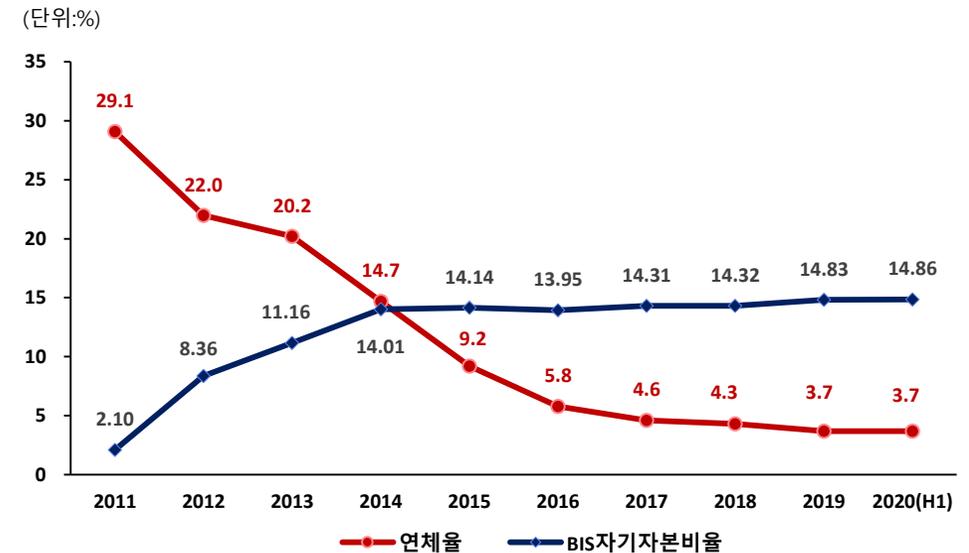
* '20.6월말 현재 14.86%로 전년 말 대비 0.03%p 증가

저축은행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



주: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기가 12월로 변경됨.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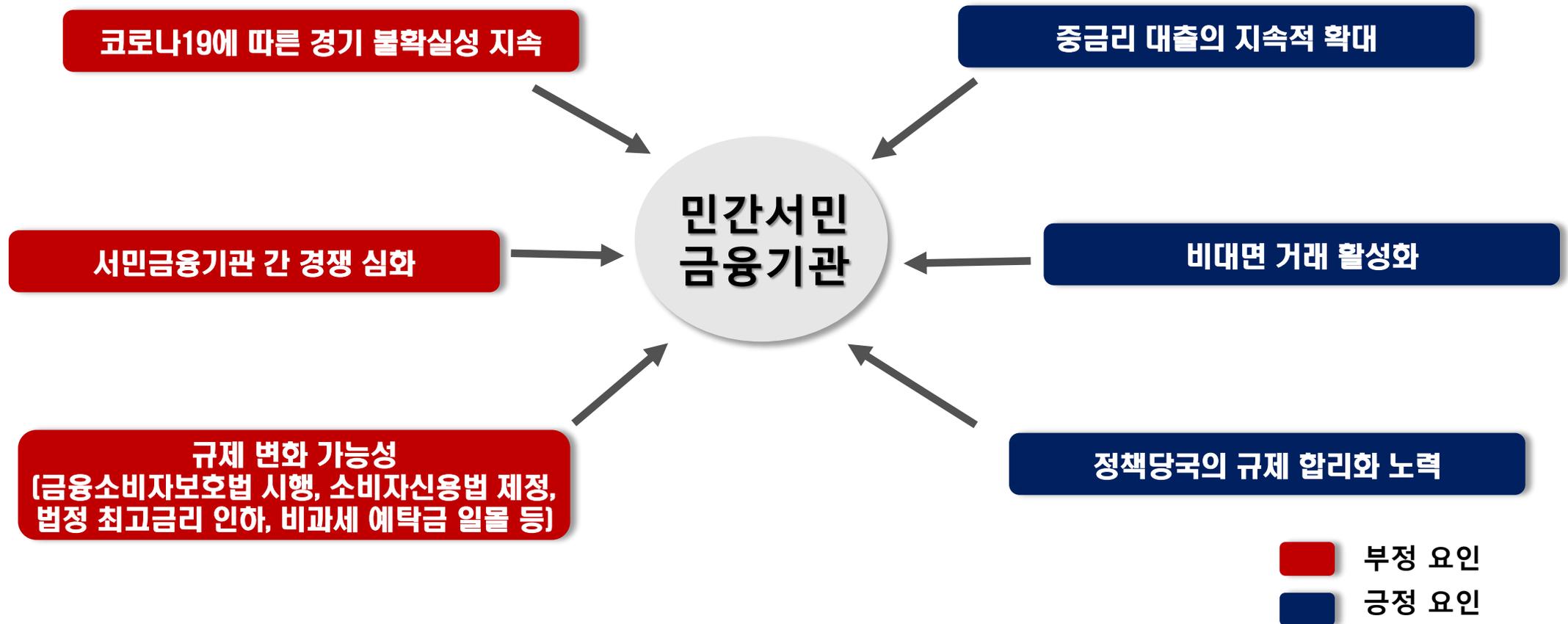
저축은행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추이



주: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기가 12월로 변경됨.
자료: 금융감독원

나. 2021년 경영환경

- ◆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지속,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에 따라 수익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



다. 2021년 경영 기회 및 위험 요인

기회 요인

- ◆ 가계 및 기업의 대출수요 지속
- ◆ 제도개선을 통한 비대면 예금 및 대출 상품 이용 활성화 노력
- ◆ 정책당국의 은행 공백 지역에 대한 점포 확대 유도
 - * 저축은행 지점 인가제 → 신고제
- ◆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
 - * 저축은행 규모별 차별적 자본 규제
 - * 저축은행간 M&A 인가 기준 완화

위험 요인

- ◆ 지역별·규모별 업권내 양극화 지속
- ◆ 유예조치 종료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가계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 차주 부실 위험 확대
- ◆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 정책에 따른 대출 위축
- ◆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개인 신용대출 수익 감소
- ◆ 신용협동조합 대출업무권역 확대에 따른 서민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
- ◆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판매제도 개편 및 판매행위 규제 변화

라. 2021년 경영 전망

◆ 2021년 성장세는 전년에 비해 제한적이며, 건전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

상호금융

성장성



-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 수요 지속
- 전년도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세 둔화

건전성



- 건전성 모니터링 등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
- 지방 부동산/산업 경기 둔화,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잠재위험 현실화

수익성



- 비대면 채널 확대에 따른 업권 간(인터넷전문은행 등)의 경쟁심화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
-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제사업부문 손실 확대

저축은행

성장성



- 영업채널 확대와 유동성비율·예대율 규제의 한시적 유예에 따른 중금리대출 성장세 지속
- 업권 내·외의 경쟁심화 및 지속적인 부동산대출 관리 정책에 따른 대출 제한

건전성



-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여신심사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
-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신용대출, 중소기업·개인사업자대출, 부동산대출의 부실 확대

수익성



- 비대면 채널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
-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자수익 감소, 경기둔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

마. 2021년 경영 과제

- ❖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및 비대면 거래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보
- ❖ 대출 모집인 관리체계 마련 및 대출 판매의 적합성 원칙 준수 방안 정립
- ❖ 지역 보증재단 연계 상품 강화 등 지역내 관계형 금융 확대
- ❖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복원력 확충 방안 마련
- ❖ 저금리 및 코로나19의 장기화 환경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모색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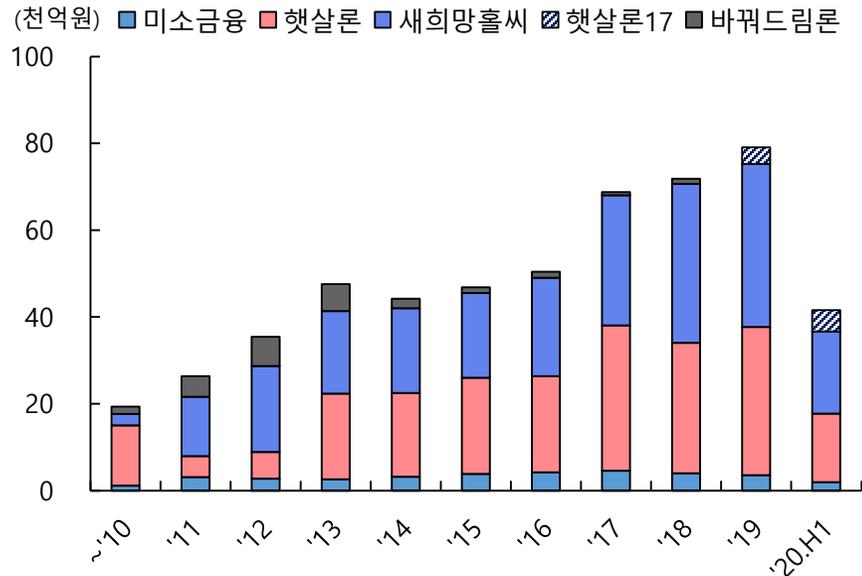
IV. 보험 · 비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2. 보험산업
3. 서민금융기관
- 4. 정책서민금융**
5. 여신전문금융업

가. 2020년 상반기 경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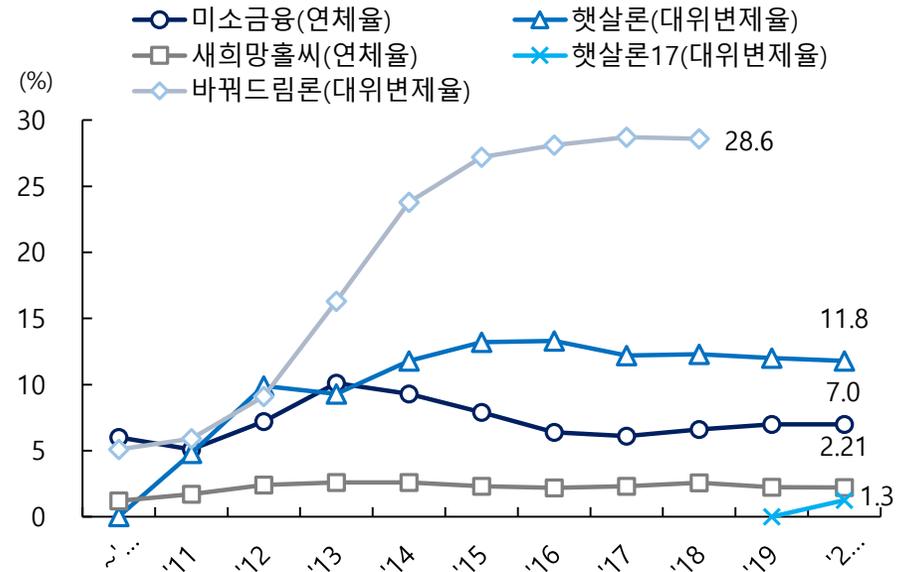
- ◆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2020년 상반기 기준 4.2조원(사업자 햇살론 포함)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
- ◆ 경기악화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

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실적 추이



주 : 바뀐드림론은 '19.9월 폐지
자료 : 서민금융진흥원

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및 대위변제율 추이



주 : 바뀐드림론은 '19.9월 폐지
자료 : 서민금융진흥원

나. 2021년 정책서민금융 환경

- ◆ 2021년 정책서민금융은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나는 서민금융 수요를 민간서민금융과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환경 형성
- ◆ 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에 대한 상담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하는 환경 형성



다. 2021년 전망 요인

- ◆ 경기회복 불확실성에 따라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전망

지원 확대요인

- ◆ 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앱, 맞춤형대출 앱, 챗봇상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맞춤형 상담 지원 강화
- ◆ 정부 출연 확대(연간 1,900억원) 및 출연기간을 2025년까지로 5년 연장
- ◆ 서민금융(신용보증) 출연 의무 부담을 가계대출 취급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및 출연 상시화
- ◆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에 상환유예 등 재기지원 강화
- ◆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

위험 요인

- ◆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 증가
- ◆ 경기악화에 따른 서민층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증대로 민간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서민금융 취급 유인 저하
- ◆ 확대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 및 기능에 비해 부족한 전문인력 및 인프라

라. 2021년 경영 전망

◆ 경기부진에 따라 늘어나는 서민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

정책서민금융

-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및 이자상환 부담 완화 등 안정적 경제생활 지원
- 확대된 서민금융 지원 재원 운용방안 구체화(예: 보증상품 은행 집중 가능성 해소)
-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,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정책서민금융과 민간서민금융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장기 계획 마련
-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상품 원금상환 유예기간 종료 이후 부실율 관리

신용회복지원

- 서민들의 낮은 상환능력과 채무자 보호 제도 강화 등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용회복 지원 상담인력 및 인프라 확보
- 코로나19 사태로 마련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 채무조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현재 신용회복 중인 자들의 재무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신용회복 지속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
-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과의 역할 재점검

마. 2021년 정책과제

❖ 서민층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민간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취급 축소 등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금융 수요 및 공급 불일치 해소 방안 마련

❖ 수요자가 정책서민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(앱, 홈페이지, 콜센터, 챗봇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 포함) 개선 및 서민금융 수요 증가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확대 예방

❖ 신규 자원 조성 및 부실률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 및 장기적 운용 계획 수립

❖ 『소비자신용법안』 등 채무자 보호 강화 추세에 대응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효율적인 신용회복지원 체계 마련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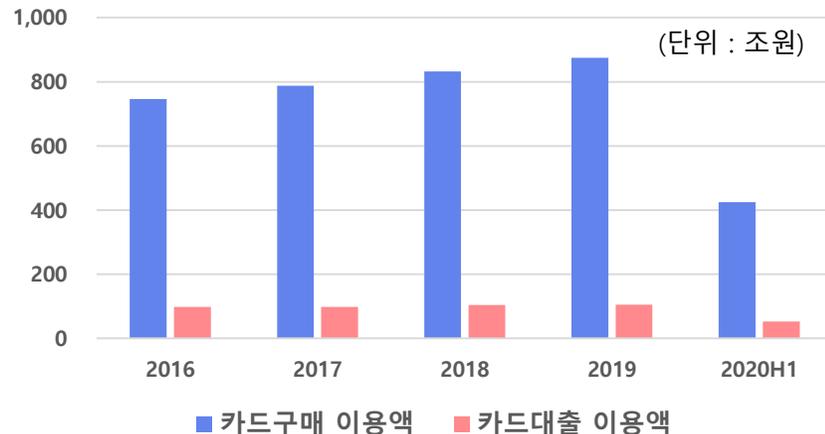
IV. 보험 · 비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2. 보험산업
3. 서민금융기관
4. 정책서민금융
- 5. 여신전문금융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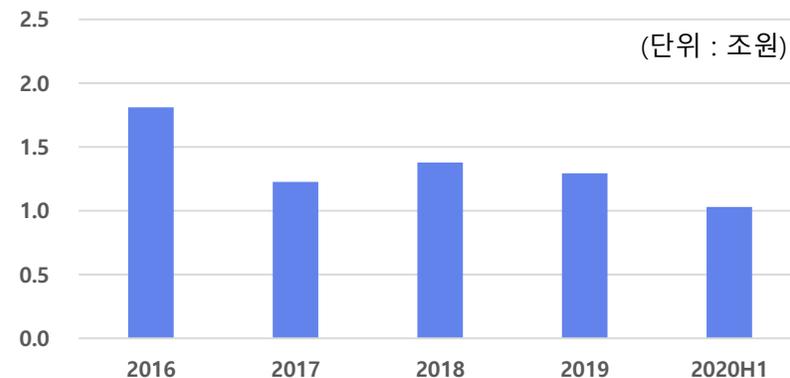
가. 2020년 상반기 경영 현황(신용카드업)

- ◆ 2020년 상반기 중 카드사 순이익은 1.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.9% 증가(전업카드사 기준)
 - 주로 카드론수익 증가와 업무제휴수수료 비용 및 대손 비용 감소에 의해 견인
- ◆ 2020년 상반기 총채권 연체율은 1.38%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기록
 - 취약차주의 잠재부실위험은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표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

카드사 성장성 (개인+법인의 카드 구매 및 대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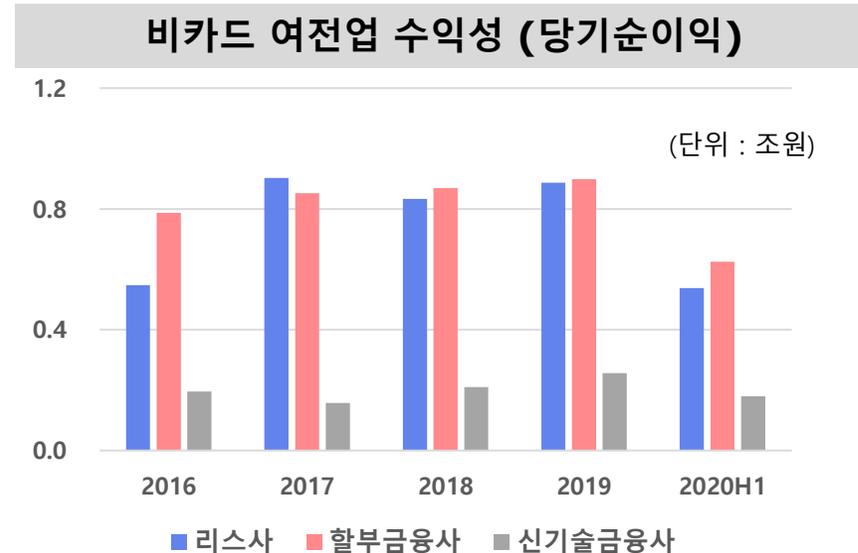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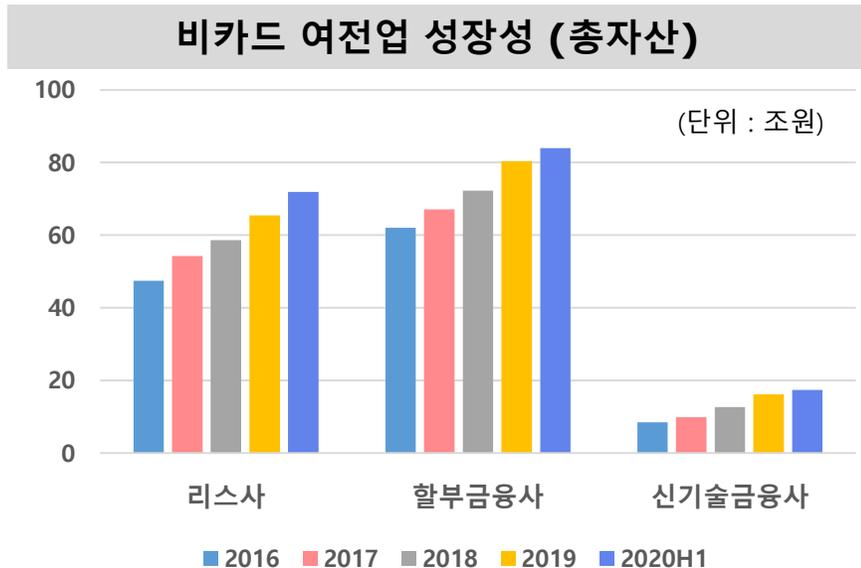


카드사 수익성 (당기순이익)



가. 2020년 상반기 경영 현황(기타 여전업)

- ◆ 2020년 상반기 중 비카드 여전사의 총자산은 171.2조 원으로 전년 동월 말 대비 12.2% 증가
 - 고유업무 자산과 대출 자산은 동기간 각각 10.5%와 11.2% 증가
- ◆ 2020년 상반기 중 비카드 여전사의 순이익은 1.3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.2% 증가
 - 이자수익 증가(3.1%)와 대손비용의 급감(△19.7%)에 의해 견인
 - 다만 고유업무 영역에서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
- ◆ 2020년 6월말 기준 연체율은 1.49%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.4%p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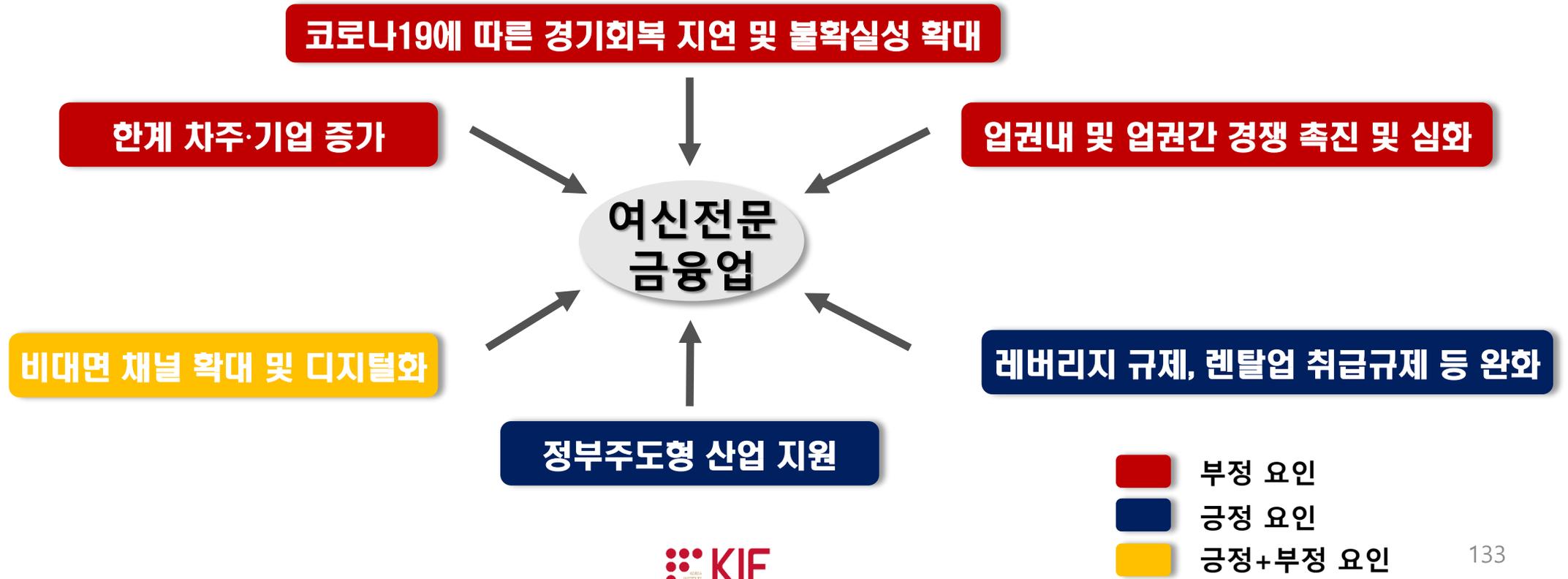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금융통계정보, 금융감독원

주 : 대손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이익
 자료 : 금융통계정보, 금융감독원

가. 2021년 여신전문금융업 경영환경

- ◆ 코로나19로 인한 부실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전통적 영업기반에서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경영환경이 형성될 전망
 - 상환유예조치 만료 이후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
 - 비대면 채널 확대 및 디지털화에 따른 영업 방식 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



나. 2021년 경영 기회 및 위험 요인(신용카드업)

기회 요인

- ◆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카드 이용 선호 확대
- ◆ 카드론 등 대출 수요 확대
- ◆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 여력 확보
- ◆ 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 관리의 효율성 개선
- ◆ 마이데이터 사업 등 업무 영역 확대 가능성

위험 요인

- ◆ 코로나19 위험 지속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
- ◆ 유예 조치 종료 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 및 대손 비용의 증가 가능성
- ◆ 저금리에 의한 마진 축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지속 등 고유업무 기반에서의 수익성 개선 요인 부족
- ◆ 디지털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비금융업 권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

다. 2021년 경영 기회 및 위험 요인(기타 여전업)

기회 요인

- ◆ 개인신용대출 수요 확대
- ◆ 경기 반등 시 기업금융 자산에서의 높은 수익 실현 가능성
- ◆ 렌탈업 취급 규제 완화에 의한 사업 영역 확대
- ◆ 뉴딜 사업 등 정부주도형 산업 관련 금융 및 신기술사업금융의 수요 확대

위험 요인

- ◆ 기업금융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한계 기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
- ◆ 경기침체 지속 또는 금융충격 발생 시 여전채 조달 불확실성 상존
- ◆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 접근성에 있어 은행·카드사 대비 상대적 열위
- ◆ 자동차 금융시장에서의 업권 내 및 타 업권과의 경쟁 심화

라. 2021년 경영 전망

◆ 2021년은 올해에 비해 성장성 및 수익성은 제한되고,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

신용카드	성장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취약계층의 높은 대출 수요 지속 및 마이데이터 사업 등 업무 영역 확대 가능성 • 디지털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
	건전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잠재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 • 레버리지 비율 증가에 의한 건전성 악화 우려
	수익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 범위 확대에 의한 대체 수익원 발굴 •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지속 및 대손 비용 증가에 의한 수익성 악화
비카드여전	성장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렌탈업 취급 규제 완화와 신기술사업금융의 수요 확대 등에 의한 성장 가능성 • 비대면 채널 확보 및 플랫폼 경쟁에서의 열위로 인한 리테일 기반의 성장성 위축
	건전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금융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계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 역시 증가 • 경기회복 지연 시 여전채 조달 및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존재
	수익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타 업권과의 경쟁 심화 및 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손 비용 상승 • 다만 기업금융에서의 고수익 실현 가능성 역시 상존

바. 2021년 경영·정책 과제

❖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연체 증가 대비 및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

❖ 고유업무 영역에서의 수익 위축 극복을 위한 수익원 창출의 다변화

❖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화에 기반한 고객 중심형 서비스 제공

❖ 신기술사업 및 국가육성산업에 대한 투자 및 여신 기회 발굴